



보도시점 2025. 2. 25.(화) 08:00 배포 2025. 2. 25.(화) 08:00

‘24년 해외에서 한류 중 케이팝에 가장 큰 관심, 북미 대륙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높아

- 전 세계 30개국 외신과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68만 건 자료 수집·분석,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 발표
-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한국 문화 알리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 이하 문정원)과 함께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외신 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 분석해 ‘202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의 연간 보고서 1종과 분기별 보고서 4종 등 총 5종의 보고서로 구성됐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 이상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엑스(X, 구 트위터)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5,762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다. 한류 영향력을 가늠하는 해외 데이터가 매우 희소하고 발굴과 수집, 분석 난이도 등을 고려할 때 68만 건 이상의 방대한 양의 한류 빅데이터 분석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한류 기사 대륙별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많이 보도,
콘텐츠별 케이팝 관심이 가장 커, 북미 대륙에서는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 매우 높아

먼저 대륙별로 한류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50.6%), 유럽(27.5%), 북미(13.6%)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케이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인도, 미국,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한류 관련 보도가 많았다. 인도, 태국, 필리핀에서는 케이팝 비중이 높았으나 나이지리아, 미국, 영국에서는 한국 음식(케이푸드)의 비중이 높았다. 튀르키예에서는 한국 드라마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중국은 한국 영화(케이 무비) 콘텐츠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대다수 대륙별 주 관심사는 케이팝으로 분석됐지만, 북미 대륙은 한국 음식(케이푸드)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치의 날 제정과 김치의 효능, 불닭볶음면의 유행에 관한 보도와 언급이 많았다.

‘24년 한국 음식 주요 화제어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

한국 음식(케이 푸드)에 대한 주요 외신 반응을 살펴보면 ‘김치’에 대한 관심이 월등히 높았다. 김치의 효능, 김치의 날 행사 관련 기사가 꾸준히 보도됐다. 누리소통망 내에서도 김치는 꾸준히 상위 화제로 등장하며 관련 핵심어로 ‘매운(spicy)’, ‘맛있는(delicious)’ 등이 함께 출현했다. ‘24년 한 해 한국 음식(케이푸드) 관련 주요 화제어는 ‘김치’, ‘소주’, ‘치킨’, ‘비빔밥’, ‘불닭볶음면’이었으며, 누리소통망에서는 ‘김치’, ‘먹방’, ‘불닭’이 화제였다. 재미있는 것은 ‘먹방(mukbang)’은 매 분기 꾸준히 언급되었고, 한식 언급이 없을 때도 출현해 ‘먹방’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였다.

그 밖에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묘>, <베테랑2>, <범죄도시4>, <콘크리트 유토피아> 및 <오징어게임2>, <눈물의 여왕>, <선재 업고 튀어> 등 케이 콘텐츠가 여러 대륙에서 고루 주목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한국 문화 알리는 역할 톡톡히

아울러 2024년에는 ‘파리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축제가 있었던 만큼

외신과 해외 누리소통망 검색량에도 영향을 끼쳤다. 분석 결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마련된 ‘코리아하우스’가 올림픽 기간 내 파리를 찾은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의 성화봉송, ‘코리아 시즌 2024’ 개최, 팀코리아 응원봉 활용 단체 응원전 등이 높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연간 보고서’와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보고서’ 5종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www.bigdata-cultu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 한류 정책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분석 자료 적기 제공

문체부와 문정원은 한류·문화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12월, 한류 외신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자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매주 150여 건의 문화·한류 데이터를 분석한 ‘주간 한류 외신 동향 키워드’와 분석 기초자료(로우데이터)를 무료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 내 게시되어 있는 자료 가운데 2년 연속 내려받기 건수 1위를 기록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체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문화·한류 주간 외신동향 보고서 및 연간/분기별 보고서
 따로 붙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2024년 요약본)’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뉴스분석팀	책임자	팀장	최강 (02-731-1505)
		담당자	사무관	김영주 (02-731-1525)
<공동>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빅데이터팀	책임자	팀장	이권수 (02-3153-2821)
		담당자	주임	정유진 (02-3153-2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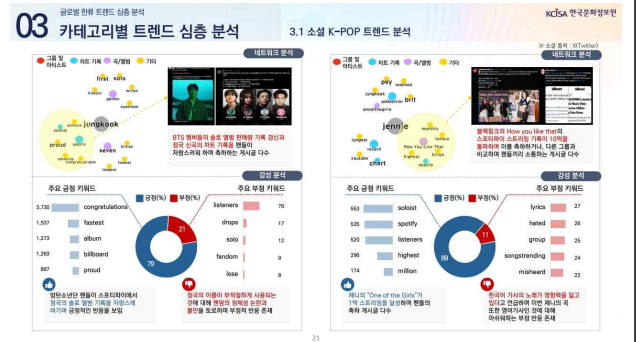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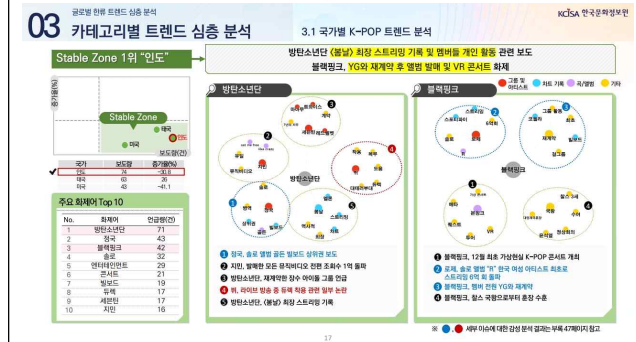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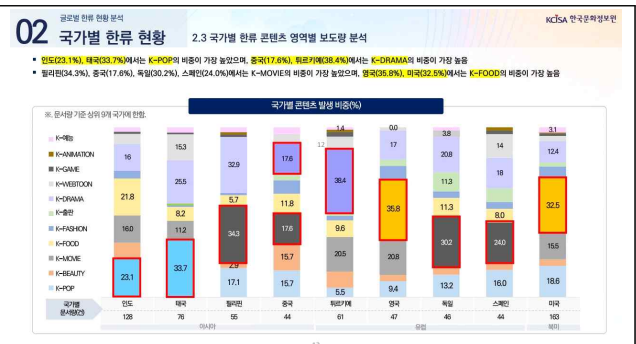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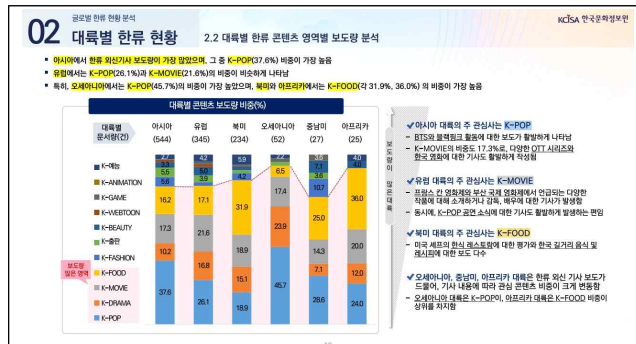
[문화·한류 주간 외신동향 보고서]

[illegible]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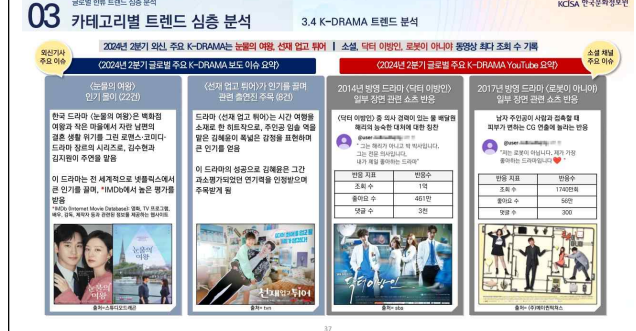
[illegible]

[분기별 한류 외신동향 분석 보고서 4종]



'23년 4분기 보고서 (2023. 10. 1. ~ 2023. 12. 31.)

'24년 1분기 보고서 (2024. 1. 1. ~ 2024. 3. 31.)



'24년 2분기 보고서 (2024. 4. 1. ~ 2024. 6. 30.)

'24년 3분기 보고서 (2024. 7. 1. ~ 2024. 9. 30.)